

# NEWS

2025년 3월 10일 월요일

### 법원, 윤석열 구속 취소 청구 인용... 광주 법조계 반응은

## “피고인 방어권 보장 적용... 이례적인 판단”

#### ▶1면 '윤탄핵 선고'서 계속

현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여야의 대립각도 더 가팔라지고 있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 전원인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고할 때까지 매일 원내·외에서 비상행동을 계속하기로 지난 8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결의했다.

매일 오후 2시에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오후 7시 광화문에서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참석한 뒤, 오후 10시에 다시 국회로 돌아와 의원총회를 연다. 이어 자정까지 로비팅을 통해 농성하고 자정 이후 국회 내에서 밤샘 농성을 이어가는 일정이다.

국민의힘은 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및 석방을 계기로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삼판 중인 헌법재판소를 향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며 압박에 나섰다.

박민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은 위법을 단죄하는 자가 법적 절차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상식에 입각한 결론”이라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가 잘못된 토대 위에 거짓으로 쌓아 올린 바벨탑이라는 사실이 입증된 이상, 현재 역시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통령 탄핵 심판을 당연히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시기에 대해 “(현재가) 너무 늦게 하긴 어렵겠지만 근본적으로 적법 절차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며 “생각이 좀 더 오래 걸리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돼 구금된 지 52일 만에 석방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오후 5시19분께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2시에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지 약 27시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구속됐다. 이후 검찰이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체포된 지 52일 만에 석방되게 됐다. 앞으로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광주·전남 단체장과 시민사회단체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불복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검찰을 강하게 규탄했다.

### 검찰 늦장 기소·빌미 제공 등에 강하게 비판

광주지역 법조인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신청을 인용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피고인(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에 따른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다만 이러한 사태의 빌미를 제공한 검찰의 ‘늦장 기소’를 강하게 비판했다.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한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이견도 제시됐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구연 부장판사는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러한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A변호사는 “이례적인 판단이지만, 피고인(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틀린 결정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구속 기간 불산입에 대한 세세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 판례도 없다. 공교롭게도 최초로 적용된 케이스가 윤 대통령이라 아쉽다”고 밝혔다.

주요 쟁점이었던 구속기간 만료 시점과 관련해서는 “관례로 구속기간 산입을 ‘날’로 해왔지만 재판부가 지적인 것처럼 ‘시간’으로도 충분히 증명된다”면서 “이번 판결은 향후 사법제도를 바꿔나가는

진일보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은 불구속 수사 원칙(제198조1항)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인신의 구속은 가능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보였다. 다만 검찰의 ‘늦장 기소’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검찰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한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이 불허됐을 때 곧바로 기소 절차에 돌입했다면 이러한 문제는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변호사도 비슷한 입장을 내비쳤다.

B변호사는 “인신구속 사유를 엄격히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야 한다는 법리적 판단이 이뤄진 것”이라며 “사법부의 판단과 취지에 대해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공수처가 검찰에 윤 대통령의 사건을 송부할 당시, 검찰이 곧바로 기소하지 않으면 추후 구속기간 산정을 두고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음에도 대응이 늦은 측면이 있다”면서 “검찰이 구속 만료 시간 계산 잘못하면서 벌어진 일이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재판부의 결정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3·8 세계여성의 날 광주전남여성대회’ 8일 광주 동구 금남로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3·8 세계여성의 날 광주전남여성대회’에 참석한 광주시 청소년 성문화센터 직원들이 시민들에게 올바른 성평등 정책실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C변호사는 “그동안 법원은 피고인 구속된 시기를 오전과 오후 등 ‘시간’과 관계없이 ‘날’로 산정, 구속된 피고인이 유리하도록 해석하는 등 인권을 보호하고 있었다”면서 “법원의 이번 판단은 그동안의 관행과 맞지 않다. ‘날’과 ‘시간’이라는 개념을 섞어서 판단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특히 “형사소송법 제203조의2(구속기간을 계산할 때 체포된 날로부터 구속시기를 계산)와 66조 제1항 단서(초일은 계산하지 않고 1일로 산정한다) 등에 근거해 구속 기간 산정은 ‘날’로 계산하는 것이 수십 년 간 확고하게 운영됐고, 의문의 여지없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약에 이번 사법부의 판단이

적용되면 오전 10시에 구속된 피고인을 10일째 되는 날의 오전 10시에 석방해야 하고, 오후 10시에 구속된 피고인은 10일째 오후 10시에 풀려나야 한다”면서 “이러한 계산 방식은 (구속 기간에 대한) 균형에도 맞지 않다. 의문이 드는 판결이다”고 강조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광주시 ‘3대 문화시설’ 유치사업 청신호

### 대한민국역사박물관·민주화역사관 설립 ‘시동’ 지역 미술계 숙원 국립현대미술관 유치 가시화

광주시에 추진하는 대한민국 3대 문화시설 유치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3대 문화시설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회도서관이다. 이 중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민주화역사관의 광주 설립이 추진되고,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도 가시화하고 있다. 국회도서관 광주분원 건립도 국회에 건의한 상태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한국 2035 프로젝트’에 따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민주화역사관의 광주 설립과 국립미술관 지역 분관 확대 사업이 추진된다.

시는 이를 위한 예산 확보와 미술품 등 미술자료, 민주역사자료 수집 지원 등 해당 기관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 시는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과 대한민국의사박물관 민주화역사관이 광주에 들어서면 지역의 문화·관광자원 및 콘텐츠를 바탕으로 문화예술, 관광개발 정책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문체부는 국립문화기관 지역 분관 확대와 법인 설립 등 국립미술관의 새로운 운영모형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올해 ‘국립미술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과 지역별 배치, 특성

### 도, 어업분야 고용안정 지원 8개 시군 1억5500만원 투입

전남도는 어업 분야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건강관리를 위해 통역 지원과 의료비용으로 8개 시군에 사업비 1억55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올해 상반기에 2776명을 배정받아 2186명이 근무하는 등 점차 늘고 있다. 전남도는 급속히 증가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 고용관리를 위한 도비 지원을 통해 시군에 1명씩 통역을 배치하고, 계절근로자의 질병·상해 발생 시 1인당 최대 25만원의 치료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해양수산부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제 사업을 신청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해남군(위탁기관 해남군수협)이 선정됨에 따라 시범 사업비 1억원을 배정받아 사전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현규 기자

## 화순 어린이 직업체험 테마파크

# 키즈라라

어린이들에게 호기심과 즐거움, 꿈 찾는 진로 체험!  
키즈라라에서 30여가지 직업 체험을 만나보세요!

30여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어린이 직업체험관**



꼬마허어로 슈퍼액과 함께할 수 있는

**영유아 체험관**



어린이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키즈라라 잔디광장**



**키즈라라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직업체험**

- 즐거운 삶의 문화를 창조하는 항공훈련센터·뷰티살롱 등
- 미디어로 소통하는 TV 방송국·1인 방송국 등
- 호기심을 갖고 끊임없이 탐구하는 공룡연구소·AI 로봇연구소 등
- 맛있고 건강한 먹거리를 만드는 쿠키·치즈공방·식품연구소 등
- 사회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서·경찰서 등

어린이 테마파크 **키즈라라** 전라남도 화순군 도곡면 온천1길 35 **T. 1600-7953**